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3년 8월  
석사학위논문

한국의 IFRS 도입을 통하여 본 베트남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 계 학 과

응엔쎬다이

# 한국의 IFRS 도입을 통하여 본 베트남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Transparency in  
Vietnam company through the Adoption of IFRS in Korea

2013년 8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 계 학 과

응엔쎬다이

한국의 IFRS 도입을 통하여 본 베트남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지도교수 조승제

이 논문을 회계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응엔쎬다이

# 응엔쎄다이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길영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문래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응제	

2013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Transparency in Vietnam Company through the Adoption of IFRS in Korea

by : Nguyen Xuan Dai

Advisor : Prof. Jo Seung-Je, Ph. 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particularly in accounting transparency in Vietnam companies through the process of liberalization and reformation of Vietnam is not easy one to be completed. However, acquiring accounting transparency is critically important in the development of company itself as well as in each country's economic growth. This study was to provide several suggestions to enhance accounting transparency in Vietnam. For this purpose, theoretical research on the IFRS and a comparative research with Korean adoption of IFRS were performed. And some controversial issues on the accounting system and accounting transparency in Vietnam were reviewed.

Several recommendations provided after the literature research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in Vietnam and corporate accounting transparency are as follows.

First, the early adoption of IFRS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were proposed as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strengthening of disclosure standard is also suggested.

In the case of Korea, accounting transparency is appreciated as positive effects with the introduction of IFRS. But settle down of IFRS is considered to take more than couple of years. Consistent adjustment and implementation would be required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government, academy, and practice.

Second, the necessity of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with an emphasis on the outside directors, and strengthening the audit system are presented as a structural improvement.

Finally, manager's ethical mind and social environment as an implementation improvement are suggested. Therefore, eradication of accounting fraud requires high management's ethical standards.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3
제3절 연구의 방법 .....	4
제2장 국제회계기준(IFRS)의 개요 .....	6
제1절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	6
1. IASB의 의의 .....	6
2. IFRS의 의의와 주요특징 .....	7
제2절 IFRS의 국제적 도입 동향 .....	10
1. EU .....	11
2. 그 외 국가의 도입실태 .....	11
제3절 IFRS 도입의 장·단점과 선행연구 .....	13
1. IFRS 도입에 따른 장·단점 .....	13
2. IFRS에 관한 선행연구 .....	16
제3장 회계투명성 .....	19
제1절 회계투명성의 정의와 측정방법 .....	19
1. 회계투명성의 정의 .....	19
2. 회계투명성의 측정방법 .....	22
제2절 회계투명성에 대한 선행연구 .....	26
1. 회계투명성과 기업지배 구조에 대한 연구 .....	26
2. 국가간과 기업간의 회계투명성 차이에 대한 연구 .....	32
3. 회계투명성의 경제적 영향 .....	35



제4장 베트남기업의 회계투명성 현황 .....	36
제1절 베트남의 회계제도 .....	36
1. 베트남 회계제도 관련 규정 .....	36
2. 베트남 기업회계제도의 특징 .....	38
3. 베트남의 회계제도 요약 .....	40
4. 한국과 베트남의 기업회계제도의 주요차이 요약 .....	41
제2절 베트남 상장기업의 회계 투명성 .....	45
1. 베트남경제의 투명성 .....	45
2. 베트남 기업의 회계투명성 .....	46
제3절 베트남 기업의 분식회계 현황 .....	48
제5장 베트남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	51
제1절 한국의 회계투명성 확보방안 고찰 .....	51
1. 제도적 개선방안 .....	51
2. 구조적 개선방안 .....	54
3. 시행상의 개선방안 .....	55
제2절 베트남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	58
1. 제도적 개선방안 .....	58
2. 구조적 개선방안 .....	59
3. 시행상의 개선방안 .....	60
제6장 결론 .....	61
참고문헌 .....	63

## 표 목 차

<표2-1> 유럽국가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IFRS 적용 .....	14
<표2-2> IFRS 적용에 따른 예상 되는 어려움 .....	15
<표4-1> 베트남의 현행 회계 관련 법률 및 규정 .....	36
<표4-2> 한국과 베트남의 자산관련 회계처리 규정 비교 .....	43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970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이사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와 EU 등 여러 기구들은 국제적인 상황에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고 서로 다른 국가들의 회계기준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후 EU는 회계정보의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2002년 규정 1606/2002를 승인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유럽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EU 기업집단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요구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자본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그동안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용되어 온 IFRS가 빠른 속도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 미국에 이어 일본마저 2011년부터 IFRS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것은 미국까지 IFRS를 도입한 마당에 적용시기를 늦출 경우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본을 유치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제정기구인 회계기준원을 설립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주요내용을 우리 회계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기준 선진화 작업으로는 한국기업의 회계 신뢰도 제고에 한계가 있어 IFRS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 통일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증권감독당국, 재정부, 회계기준원 등을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위원단을 구성하고, 같은 해 2월부터 8월까지 6차례에 걸친 준비위원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을 위한 로드맵(안)을 마련하였다. 2007년 3월 15일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로드맵에 의하면 2009

년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2011년에는 모든 대상기업에 대하여 의무 적용하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로드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공표하였다<sup>2)</sup>. 이는 국제회계기준이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즉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 국제회계기준 채택으로 한국의 회계투명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 채택으로 이제 한국만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또한 IASB가 IFRS를 재개정하는 경우 이를 여과 없이 단기간 내에 그대로 한국 기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최근 금융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이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전달하여 자국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신속히 기준 개정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내의 상황을 전달하고 이를 IFRS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혹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상황변화에 따른 자의 적인 회계기준 개정을 피할 수 있어 한국 회계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황변화에 따라 기준을 적절히 개정하지 못함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도 한다.

또한 IFRS 도입으로 이제 재무제표 작성 시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므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외국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산재평가, 공정가액평가, 그리고 자산손상 등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면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에서 외관상 외국의 재무제표와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오히려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IFRS 도입 후에는 회계기준에 충실하게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이를 감시감독하는 관행을 정착할 필요가 있다.

IFRS의 성공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하여 우선 회계분야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IFRS 관련 규정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IFRS 도입 로드맵을

---

1) 한국회계기준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2007. 3. pp.2-3.

2) 황인태·한봉희·강선민,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2008, p.31.

발표하면서 2011년까지 달성정도에 따라 IFRS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4가지 세부과제 중 ‘미국 내 IFRS 교육과 훈련 강화’ 항목이 있다. 또한 유럽의 기존 연구들에서도 IFRS 도입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IFRS를 숙지하고있는 회계전문가의 부족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IFRS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회계학 교수, 공인회계사, 회계담당자 등 회계전문가들이 IFRS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IFRS를 실제 적용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회계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책임이 있는 경영자들에게 IFRS의 정신을 이해시키고 IFRS 적용에 따라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IFRS를 도입한 선진국들의 회계제도 변화 및 회계 적용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 IFRS 도입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감독당국은 IFRS가 원활히 도입 및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시장과의 소통을 더욱 중시해야 할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목적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정보시스템, 기업조직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단순히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관련법의 개정 등 그 파장은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FRS의 성공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식과 상당기간 기업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영향과 변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회계투명성 하락과 경제적 손실이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IFRS 도입에 따른 관련법 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호주의 경우 2005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이후 회계기준 제정기구

의 역할 및 기구 구성문제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이미 도입한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여 회계기준 제정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검토하여 자국의 회계기준의 구조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재무보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명확히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기업의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재무제표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둘째, 회계투명성에 대한 개념과 효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회계 투명성확보를 위한 한국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셋째, 베트남 기업의 회계처리 방법과 투명성에 대한 진단을 통해 베트남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상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넷째, 베트남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베트남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첫째, 이론적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질을 높여, 자국 및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 투자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국제회

계기준에 대한 정의 및 특성, 각국의 도입사례, 도입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국제회계기준이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것이다.

둘째, 회계투명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회계투명성의 정의 및 투명성 측정방법,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베트남의 회계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베트남 회계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베트남의 기업회계의 특징과 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할 것이다.

넷째,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베트남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할 것이다.

## 제2장 국제회계기준(IFRS)의 개요

### 제1절 국제회계기준(IFRS)의 개요

#### 1. IASB의 의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IASB)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재무회계기준을 제정할 목적으로 세계 각국의 회계 전문단체들이 협력하여 1973년 6월 29일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국제 민간단체이다.<sup>3)</sup>

1973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10개 국가 회계관련기관이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를 설립하여 국제회계기준서인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공표하고 1995년에 EC(European Commission), EU의 다국적기업에 IAS 사용을 권고하였다. 2001년에 전세계 다국적기업에 IAS 사용을 권고하였으며, 2002년에는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 명칭을 IASC를 IASB로 변경하였다.<sup>4)</sup> 그리고 IASB설치 이후 국제회계기준서 명칭을 IAS에서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로 변경하였다. 2002년은 7월에 EU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2005년부터 IFRS사용 의무화하였다.<sup>5)</sup>

IASB가 정한 IFRS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sup>6)</sup> IAS 기준이 되는 초안이 작성 공표되면, 보통 6개월의 공개기간을 가진 다음 확정된다. 1975년 기준 제1호 '회계방침의 개시'를 시작으로 1993년까지 제47호의 공개초안이 공표되었다.<sup>7)</sup> 2000년에는 증권 관련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였는데, 이 기준은

---

3) 상계서, pp.31-33.

4) S. A. Zeff., "Political Lobbying on Proposed Standards: A Challenge to the IASB", Accounting Horizons, 16(1), (March), 2002, pp.43-54.

5) 전계서, pp.32-33.

6) C. Hodgdon., R. H. Tondkar., D. W. Harless., and A. Adhikari., "Compliance with IFRS disclosure requirements and individual analysts forecast errors",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17(1), 2008, pp.1-13.



같은 해 5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정기총회에서 세계적인 단일기준으로 채택되었다. IASB는 현재 EU를 중심으로 주요국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미국4, 영국3, 프랑스2, 호주, 스웨덴, 남아공, 일본, 중국 각1명)되어 있으며, 2008년 7월 IASB 위원수를 14명에서 16명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 개정을 요청하였다.<sup>8)</sup>

IASB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IASB와 IFRIC 위원 선정 등 인력관리와 재정을 담당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 IASCF)과 IASCF의 공적책임 제고 및 IASCF의 관재인과 감독당국간 연결고리 역할 수행하는 감시위원회(Monitoring Board)가 있다.<sup>9)</sup> 그리고 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정하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 IFRIC)와 회계기준제정과 관련하여 IASB에 조언을 제공하는 기준자문위원회(Standards Advisory Council :SAC) 및 회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회계기준 제정관련 프로젝트 수행하는 전문연구그룹(Working Group) 등이 있다.

## 2. IFRS의 의의와 주요특징

### 가. IFRS의 의의

IFRS는 IASB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위해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으로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IFRS에 적극적이지 않다 개별재무제표와 취득가등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한국회계기준과 달리 연결재무제표, 자산과 부채평가 시 공정원가평가, 충담금 산정시 실제

---

7) 정도진, “국제회계기준의 집행과 감독기관의 역할”, 국제회계연구, 22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08, pp.115-134.

8)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Practic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lessons learned : country case studies on IFRS, New York : United Nations, 2008.

9) L. N. Curtis., and A. P. Gary ., Introduction to Financial Accounting, South-Western, 2009.

손실 등을 적용해야한다.<sup>10)</sup> 따라서 IFRS를 도입하면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사용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재무적 영향을 넘어서 공시체계·재무정보 시스템·경영성과지표 등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보고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세계 자본시장의 자유화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에 대한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가 함께 IASB를 설립하고 공통된 IFRS를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IFRS이다.<sup>11)</sup>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있는 IFRS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원칙중심의 기준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재무 상황과 내재가치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와 공정가치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10여개 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수용 또는 수용할 예정이며 IFRS를 사용하는 국가가 2011년에는 약 150여 개국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우 오는 2009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자발적으로 적용되는데 이어 2011년 사업연도 회계장부부터 전 상장사와 주요 금융회사들이 의무적으로 도하였다.

국제회계기준서와 국제회계기준해석서를 2009년 12월말까지 살펴보면 국제회계기준서는 IFRS가 9개, IAS가 29개 발표되었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해석서는 IFRIC 해석서 18개, SIC(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해석서 11개가 발표 되었다. IFRS의 제정절차 국제회계기준서 및 국제회계기준해석서는 제정절차를 거쳐 제정되며 제정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등을 함으로써 각국의 의견을 반영 IASB에서 제정 또는 개정 완료된 기준서이다.

## 나. IFRS의 주요특징

IASB는 IFRS를 제정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

---

10) M. F Paul., J. T,William and H. C. Rita., Advanced Accounting, South-Western, 2009.

11) L. Cabrera, "Widespread Acceptance of IFRS Continues", CPA Journal, 78(3), 2008, pp.36-37.

구와 공동으로 작업 수행한다. IFRS는 원칙중심의 기준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sup>12)</sup> IFRS의 주요 특징으로는 원칙주의이므로 전문가의 판단이 중시되고 연결재무제표 중심이며 취득원가보다 공정가치인 시가를 확대 적용하는 것 등이 있다.<sup>13)</sup> 또한 일반 원칙하에서 다양한 회계처리 방법이 허용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붙는 주석에 그 내용을 더욱 많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IFRS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국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제정되는 기준이라는 점이다. IASB는 기준 제정 과정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와 공동 작업을 하고 있으며, IFRS를 도입하거나 합치를 추진하는 국가의 회계기준 제정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IASB와 기타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자본시장의 참여자 및 기타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재무제표와 기타 재무보고에 있어 고품질,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갖춘 이해가능하고 강제성 있는 단일의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이용 및 엄격한 적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ASB와 다른 회계기준 제정기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둘째, 원칙중심의 기준체계이다. IFRS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는 데 반해 미국회계기준 등은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IASB는 기업의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예측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규칙의 자구해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회피가 더욱 쉬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계기준 당국은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 및 근거를 제시하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을 설정하게 되었다.

12) 여은정·고윤성·김지홍,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IFRS 도입국(독일, 영국,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19집, 2007, pp.175-201.

13) M. Barth, W. Landsman, and M. La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6(3), 2008, pp.467-498.

셋째, 연결재무제표 중심이다. 기업회계기준하에서는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 작성 이후 제출하는 추가적인 재무자료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IFRS 도입 이후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투자자의사 결정 등 많은 재무수치에 근거한 의사결정에서 연결재무제표상 수치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넷째, 공정가치 평가이다. IFRS는 회계처리방법의 선택 및 공정가치 평가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IFRS의 내용상 핵심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IFRS는 금융자산·부채와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유형자산의 재평가법 적용을 수용하고있고,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경우도 보험수리적인 평가에 의해 충당부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투자부동산의 경우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이다.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재무제표의 주식사항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IFRS에서는 이러한 공시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우선 기본적인 공시내용이 연결기준으로 바뀔 것이며, 상기한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나 영업부문에 대한 재무정보가 공시되어야 하므로 IFRS를 적용하게 되면 주식사항의 분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재무제표의 명칭과 구조이다. IFRS에서는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되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 재무제표에서 제외된다. 다만, 한국 상법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식사항에 공시해야한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구조 및 계정항목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 제2절 IFRS의 국제적 도입 동향

IFRS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현재 110여개국, OECD 가입국의 80%가 IFRS를 실행 혹은 전면적인 도입을 진행 중이다.<sup>14)</sup> 주요 국가의 IFRS 도입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EU

유럽의 경우 유럽경제통합과정에서 국제적 회계기준의 수용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IFRS를 채택하였는데 1999년 EC(European Commission)가 FSAP(Financial Service Action Plan)를 발표하였다.<sup>15)</sup> 2002년 유럽증권 감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들은 2003년 회계방침 차이 및 계획, 금액차이를 발표하였다. 2002년 EC의 IAS Regulation에 따라 2005년부터 EU 역내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28개국 약 8천개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sup>16)</sup> EU는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제3국 기업은 원칙적으로 IFRS 또는 IFRS와 동등성을 인증 받은 제3국의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제3국에서 IFRS와 자국회계기준을 합치할 경우 혹은 IFRS를 자국의 기준으로 채택할 경우 IFRS 적용 의무화를 2011년까지 유예하였다.

## 2. 그 외 국가의 도입실태<sup>17)</sup>

### 가 미국

미국은 IFRS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1973년 IASC의 설립에 이사국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국제증권관리위원회를 통해서도 국제적 조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02년에 IASB와 공동으로 Norwalk Agreement를 선언하였다(IASE 2005). 엔론, 월드콤 등의 대형 회계부정 사건으로 US-GAAP의 국제적 신뢰성에 대한 의문

14) Wikipedi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e Free Encyclopedia, 2010.

15) J. Hitz, "The decision usefulness of fair value accounting - A theoretical perspective", European Accounting Review, 16(2), 2007, pp.323-362.

16) D. Cairns, "The use of fair value in IFRS", Accounting in Europe, 3(1), 2006, pp.5-22.

17) 황인태 외, 전게서, 2008, pp.37-46.

이 제기 되었으며, IFRS와 US-GAAP의 차이 제거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그리고 2007년 11월에 미국 SEC는 해외기업이 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US-GAAP과의 차이조정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 나. 중국

중국은 2005년 IASB와의 합의 후 중국의 IFRS 도입을 위한 통합 작업에 착수하였다. 2006년에 IFRS의 실질적 기본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기준서 38개를 개정 및 공표하였다. 그리고 이 회계기준서를 2007년부터 상장회사들에게 적용 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IFRS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핵심원칙만 도입하여하였으며,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조인트벤처에 대한 비례 연결 등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 다. 일본

일본은 단계적 접근을 통한 IFRS와의 정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4년 10월 일본회계기준위원회와 IASB는 공동 프로젝트의 개시를 발표했으며, 2007년 8월 정합작업 가속화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8년까지 일본회계기준과 IFRS의 주요 차이를 제거하고 2011년 6월까지 나머지 차이도 제거할 예정이다.

## 라. 호주

호주는 2002년부터 IFRS 도입을 준비하였으며, 2005년부터 IFRS를 적용하였다. 호주가 채택한 IFRS는 국제회계기준의 복수 대안 중 일부를 삭제 또는 추가 공시요구가 가능한 체계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은 IASB와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비해, 호주는 2005년부터 IFRS를 완전 수용하였다. 기존의 호주 GAAP과 IFRS의 차이가 크지 않아 단기간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 시스템적인 영역에서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현재

까지도 결산을 위한 작업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시스템 변경을 비롯한 IFRS 재 구축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 제3절 IFRS 도입의 장·단점과 선행연구

#### 1. IFRS 도입에 따른 장·단점

Jermakowicz and Gornik-Tomaszewski(2006)<sup>18)</sup>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EU 기업들이 IFRS를 적용하여 실행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는 상장기업의 재무 및 회계 임원들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을 거쳤다. 설문조사 결과를 받은 112개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응답자의 대부분은 단지 연결목적 그 이상을 위하여 IFRS를 채택하였다. ②IFRS로 전환하는 과정은 비용이 소요되며, 복잡하고 그리고 부담이 되는 일이다. ③회사들은 IFRS를 적용함으로써 자본비용이 낮아지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④회계기준을 통일하는 접근법이 포괄적일수록 IFRS로 이전에 따른 효익과 비용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⑤회사들은 재무결과의 변동성이 증가하리라 예측한다. ⑥실행지침과 일관된 해석의 부족뿐 아니라 IFRS의 복잡성이 IFRS로 전환하는 중요한 도전이다. ⑦대부분의 응답 기업들은 만약 EU 규정이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IFRS를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EU 국가들 중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이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선택한 회계정책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

18) E. K. Jermakowicz. and S. Gornik-Tomaszewski., “Implementing IFRS from the perspective of EU publicly traded companies,”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15, 2006, pp.170-196.

<표2-1>유럽국가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IFRS 적용

국가	연결재무제표에 적용	연결과 개별 회계에 적용		합계
		모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벨기에	14	3	3	20
프랑스	15	-	1	16
독일	32	2	12	46
영국	4	1	5	10
합계	65(71%)	6(6%)	21(23%)	92(100%)

자료: E. K Jermakowicz, and S. Gornik-Tomaszewski., “Implementing IFRS from the perspective of EU publicly traded companies,”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15, 2006, p.183.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71%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에 한하여 IFRS를 적용하고 있으며, 29%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모두에 IFRS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연차재무제표는 독일 GAAP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독일과 같이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IFRS 적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프랑스의 경우 1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오직 연결재무제표에 한하여 IFRS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FRS를 채택하는 회사들은 그들의 재무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번의 면제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Jermakowicz et al.(2006)에 따르면 73%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IFRS 1에 있는 기본 측정원칙에 대한 선택적 예외사항들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빈번히 적용한 예외사항은 개시 대차대조표일 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을 재적성하지 않는 것이다. 즉 최초적용 기업들 중 52.4%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선택조항을 이용하려고 한다. 회사들 중 35%는 개시 IFRS 대차대조표일에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누적적보험수리손익을 인식하려고 한다. 30%에 해당하는 최초채택 기업들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을 개시 IFRS 대차대조표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려고 한다. 또한 27%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개시 IFRS 대차대조표일에 모든 누적환산 차이를 인



식하지 않는다. 단지 4% 기업만이 모두 4개의 선택적 예외사항을 이용하였으나 50% 기업들은 1개 이상의 예외사항을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러한 제한된 선택적 예외사항들은 기업들에게 선택적 결과를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Jermakowicz et al.(2006)는 연구에서 IFRS 적용에 따른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표 2-2>에서와 같이 예상되는 어려움은 크게 IFRS에 대한 지식 부족과 시스템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종업원의 IFRS 지식 부족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 IFRS 적용에 따른 예상 되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업을 위하여 제정된 IFRS의 본질적 복잡성</li> <li>•IFRS 실행지침의 부족</li> <li>•IFRS에 대한 통일된 해석의 부족</li> <li>•2005년까지 준비되지 않은 최종 규정</li> <li>•손익계정에 대한 영향</li> <li>•IAS 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계속되는 논쟁</li> <li>•IFRS의 계속되는 변화</li> <li>•병행하는 회계시스템 유지</li> <li>•과거 연도 비교재무제표 작성</li> <li>•종업원과 감사인의 IFRS 지식 부족</li> <li>•회계부서 직원과 관리자 교육</li> <li>•재무담당 인력의 사고방식 변화</li> <li>•IT구조의 변화</li> </ul>
---

자료: E. K. Jermakowicz, and S. Gornik-Tomaszewski ., “Implementing IFRS from the perspective of EU publicly traded companies,”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15, 2006, p.189.

처음으로 IFRS를 채택한 기업들 중 47%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회계시스템을 IFRS 시스템과 같이 유지하고 있다. 반면 42%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두 회계시스템을 동시에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 두 회계시스템을 모두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몇 년 동안 두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18%에 해당하는 기업은 1년 동안, 2년 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기업은 7%에 해당하였으며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은 국내회계기준이 조세목적으로 강제되는 한 무한정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Jermakowicz, Prather, and Wulf(2007)<sup>19)</sup>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DAX-30 기업들은 IFRS를 적용함에 따라 그들 내부조직뿐 아니라 재무보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설문문에 응답한 DAX-30 기업들이 IFRS를 도입하는 경우 장점과 단점을 열거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FRS를 도입하는 경우 장점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①다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가하고, ②보고의 투명성이 증가하고, ③내부와 외부 재무보고에서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IFRS를 도입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로는 ①이익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②IFRS를 도입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고, ③IFRS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④IFRS를 적용함에 따른 지침이 부족하며, ⑤국가 회계기준은 세법에 부합하다는 점들을 들고 있다.

## 2. IFRS에 관한 선행연구

IFRS는 글로벌화 및 자본시장 개방의 가속화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회계정보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라는 장점도 있으나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이중 작성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도 내포하고 있다.<sup>20)</sup> 그렇지만,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의 추세에 따라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IFRS의 도입 필요성은 첫째, 자본시장이 글로벌화 됨에 따라 전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둘째, 한국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셋째,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장부 이중 작성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넷째,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여 계열사를 통한 분식을 막고 정보의 신뢰성 및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그간 추진된 회계법인 교체, 집단

---

19) P. Jermakowicz. and C. Wulf.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come Reported By DAX-30 German Companies,"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 Accounting, Vol.18, No.3, Autumn 2007, pp.151-191.

20) 신성식·양해면, "K-GAPP와 K-IFRS의 차이에 관한 연구", 2008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경영교육학회, 2008, pp.273-283.

소송제도, 내부 회계관리제도 등과 더불어 회계투명성 개선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국제적 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21)</sup>

IFRS의 도입과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첫째, IFRS 도입이유에 대한 연구이다. 김용식·강선아(2010)<sup>22)</sup>는 K-IFRS를 2009년에 조기 도입한 13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기도입 유인과 도입 이후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조기도입 유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재무제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내·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요구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조기도입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지원 및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이다. 셋째는 유형자산 등 자산을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기 도입하였다. 넷째는 주채무제표가 개별채무제표에서 연결채무제표로 바뀌면서 이에 따른 효익을 얻기 위해 K-IFRS를 조기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FRS의 도입으로 인한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 Barth et al.(2008)<sup>23)</sup>의 연구에서는 IFRS의 채택이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은 IFRS를 자발적으로 채택한 기업과 기존의 자국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업들 사이에 이익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IFRS의 자발적 채택으로 인해 보고이익의 변동성이 증가하지만, 발생액과 현금흐름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소액 흑자 보고의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FRS의 채택으로 인해 회계이익의 가치 관련성도 향상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은정 등(2007)<sup>24)</sup>은 IFRS 도입효과에 대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독일이나 영국, 홍콩과 같은 곳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이익의 질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창원(2011)<sup>25)</sup>은 국내의 조기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미미하나 회계정보의 질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신현걸(2008)<sup>26)</sup>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재량

---

21) 조군제·노직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제32집, 2010, pp.289-310.

22) 김용식·강선아, “K-IFRS 조기도입 유인과 성과분석”, 회계저널, 19(2), 2010, pp.89-115.

23) Barth, op. cit. pp.467-498.

24) 여은정 외, 전계논문, pp.175-201.

25) 강창원,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35집, 2011, pp.1-26.

26) 신현걸,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결채무제표와 개별채무제표의 가치관련성 비교”, 대한경영학회지, 21(3), 2008, pp.1109-1136.

적 발생액의 변동에 유의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최성호 등(2011)은 코스닥 상장기업은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에 비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더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셋째, IFRS의 도입과 투자자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Ashbaugh and Pincus(2001)<sup>27)</sup>는 IFRS의 채택 이후 재무 분석가의 이익예측 오차가 감소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실제로 IFRS를 채택한 후에 예측오차가 감소하였으며 표본기업들에 대한 재무예측보고서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순·정도진(2009)<sup>28)</sup>은 IFRS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국내자본시장의 투자자의 반응을 검증하여 K-IFRS의 도입가능성이 증가하면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으면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송인만 등(2010)<sup>29)</sup>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됨으로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외국투자자들이 더욱 잘 비교해볼 수 있도록 비교가능성이 향상되고, 외국투자자에게 있었던 정보비대칭이 완화됨으로써 그들의 투자동기를 활성화 시킬 유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IFRS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재무제표 투명성요구, 조기도입으로 인한 혜택, 재무개선, 그리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효익 등으로 인하여 IFRS를 도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IFRS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첫째,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회계투명성과 이익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둘째, IFRS의 도입으로 국내기업들은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흐름의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자본시장 참여자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신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증권시장에의 접근 및 자본자유화가 용이해지고, 기업의 자본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27) H. Ashbaugh, and M. Pincus,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Predictability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3), 2001, pp.417-434.

28) 전영순·정도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한 주가반응", *회계와 감사 연구*, 49, 2009, pp.241-282.

29) 송인만·양동훈·김인숙, "IFRS 조기도입의 주요 특징 및 재무제표 영향", *회계저널 제19권 제2호*, 2010, pp.345-370.

# 제3장 회계투명성

## 제1절 회계투명성의 정의와 측정방법

### 1. 회계투명성의 정의

회계투명성의 사전적 의미는 회계정보를 회계정보의 이용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회계처리의 과정과 회계정보의 내용을 충분하게 공개함으로써 의문의 여지가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회계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회계처리의 과정까지도 의문의 여지가 없을 만큼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

고종권·윤성수(2006)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금융감독원이 감리지적기업으로 공시한 31개의 기업과 대응기업을 대상으로 Beneish의 M-score를 재검토하고, 국내 감리지적기업의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예측모형에는 판매관리비율, 부채비율, 매출액매출채권비율, 총자산매출액비율, 운전자본비율, 현금흐름비율, 금융비용비율 등이 이익조작 여부의 추정에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2003)는 2003년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연구의 일환으로 회계투명성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회계투명성을 내부통제지표와 외부통제지표로 측정하였다. 내부통제지표는 개별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구성하는 ①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 ②회계 및 감사 시스템 ③공시 ④18회계정보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통제지표는 시장 또는 제도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보장하고 강제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①공시 ②감사 ③회계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회계제도는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에 그 시행면에 있어서 불충분하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회계투명성에 대한 측정은 제도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시행상의 투명성도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남주(2002)<sup>30)</sup>는 “투명성”을 사회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체계와 일관성을 유

30) 이남주, “회계투명성과 회계제도의 개선” 상장협연구, 제46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3, pp.110-122.

지하면서 공정하게 평가되고, 명확히 식별될 수 있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모든 거래, 계약 또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였다. 그러한 투명성이란 회계투명성은 물론 경영투명성, 국가의 투명성과도 연계되어 광의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회계투명성은 목적적합성(relevance),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불편성(free-from-bias), 계량가능성(quantifiability),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충분성(sufficiency), 실용성(practicality), 윤리성(morality), 정직성(honesty) 등으로 기업회계기준의 목적에 윤리성을 추가한 개념이다. 회계투명성을 상징하는 정보들은 양적인 요소는 물론 질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며,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계분식이라 할 수 있다.

장지인(2002)<sup>31)</sup>은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처리로 제시된 항목들의 대부분이 개발비, 자산의 평가등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회계처리여서, 이러한 항목들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준거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Vishwanath와 Kaufman(2001)<sup>32)</sup>은 회계정보의 투명성의 개념을 정보의 속성으로 설명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소로 포함한다.

① 접근성(access) : 접근이 통제되면 정보비대칭이 발생한다. 법과 규제는 정보의 가용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일 뿐이며, 추가적으로 정보는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접근가능성은 뉴스매체, 공시, 인터넷 등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높아진다. 반면 낮은 교육수준은 정보에의 접근, 해석, 반응능력을 저하시키므로 투명성의 저해요인이 된다.

② 목적적합성(relevance) 이것은 정보이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완전성, 신뢰성 및 품질(comprehensiveness, reliability and quality) : 정보는 공정하고 적시에 완전하고 일관되게 이해 가능한 상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준설정기관에

---

31) 장지인, 배길수, 전영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재조명 심포지엄 발표집」 한국회계연구원 · 한국회계학회, 2002.

32) T. Vishwanath. and D. Kaufmann, "Toward Transparency: New Approaches and Their Application to Financial Markets,"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Spring, 2001, pp.42-57.

의해 설정되고 제공된 정보의 품질이 감사인 또는 외부 기관에 의하여 감시되어야 한다. 이때 공시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은 질적특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 적시성 : 중요한 정보는 적절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정기적으로 그리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 완전성 : 재무제표에는 모든 관련성 있는 거래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계속성 : 기업의 회계정책은 계속하여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회계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효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감사와 통제 : 기업은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재무제표는 매년 독립된 감사인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Bushman and Smith(2003)<sup>33)</sup>는 기업의 투명성은 공개기업의 경영성과, 재무상태, 투자기회, 지배구조 및 기업가치와 위험에 관하여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것을 의미하며, 첫째로 공시되는 재무정보의 품질, 둘째로 정보 이용자의 사적정보 획득활동의 강도, 셋째로 공시매체의 품질에 좌우된다고 하였다.

또 IMF의 투명성과 수탁책임에 대한 실무단(1998)은 시장효율성의 제고 방안으로 회계투명성과 수탁책임을 들었다. 즉 투자자와 채권자로서는 투명하게 공시된 정보가 제공되어야 수탁결과를 판단할 수 있고 경영자로서는 수탁책임의 완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투명성은 현재의 상태, 의사결정 및 행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 정의 된다.

이처럼 회계투명성에 대한 정의는 각 기관 및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결국 회계투명성이란 정해진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투명하고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33) R. Bushman. and A. Smith . “Transparency,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 Economic Policy Review 9(1), 2003, pp.65-87.

## 2. 회계투명성의 측정방법

이장형(2004)과 오현택(2006)은 회계투명성 측정방법을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성적 분석은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사업보고서를 분석하여 점수화하는 방법이며 정량적 분석은 분식회계기업의 특성 및 이익조정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Beneish(1997)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GAAP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미디어를 통해 이익조작이 공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작과 재무제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채권회수기간지수, 매출총이익지수, 자산품질지수, 감가상각지수, 판매관리비지수, 레버리지지수, 매출성장지수, 총발생액비율 등 8개 변수를 이용하였는데 이익조작기업은 발생액 및 매출채권,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높고 자산의 질이 감소하는 등의 특성을 보였다.

최관 외(2003)<sup>34)</sup>는 최관 외(1998)와 박종성(1999)의 기존 연구를 확장시킨 것으로 일반 및 수시, 특별감리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감리를 포함시킴에 따라 연구대상 표본기업의 수가 4~5배 이상 증가하였다. 조사방법은 감리대상이 된 기업 중 감리지적기업과 감리비지적기업으로 나누어 다변량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각 특성변수들이 양 기업집단 간 어떤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순이익, 현금흐름, 재무구조, 발생액,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성장률, 소유구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감사, 시장 및 기타 관련 변수 등 총 38개의 세부 변수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매출액순이익률이  $\pm 1\%$  내에 속하는 경우와 현금흐름/유동부채 및 금융비용/매출액 비율이 낮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많으며 소액주주비율이 높을수록 감리지적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최수미(2005)<sup>35)</sup>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비금융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발생액 비율, 매출액순이익률, 현금흐름비율, 부채비율, 매출채권변화, 매출총이익변화, 자산의 질

---

34) 최관·최국현, “회계부정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감리지적기업을 대상으로”, 회계학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2003, pp.214-242.

35) 최수미, “회계투명성측정과 회계투명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회계논집, 제6권 제2호,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5, pp.227-239.



변수를 이용하여 회계투명성 점수를 측정된 결과 1998년부터 회계투명성이 향상되었으며 회계투명성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철 외(2006)<sup>36)</sup>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회계연도에 있어 금융감독원의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 및 과거 분식회계 경험이 있는 공개기업을 대상으로 각 재무변수의 차별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한 unweighted 로짓회귀분석과 WESML 로짓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식회계 정도를 추정하는데 유용한 변수는 총자산순이익률, 부채비율 변화지수, 유동비율, 금융비용부담률, 기업규모, 발생액,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비율, 자산품질지수, 전기 손익수정손실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익률이 하락하고 부채비율이 증가하며 유동성이 악화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서 분식회계가 유발되고 발생액이 증가될수록, 재고자산과 비영업성 자산(투자자산 및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기 손익수정손실이 클수록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분식회계나 감리지적이 발생한 기업 등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회계투명성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기초로 하여 선정된 것이며 모두 표면화된 회계수치를 이용하여 회계투명성을 측정하였는데 이 밖에 회계투명성 측정변수로 이익조정을 설정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회계원칙에서는 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해 현금흐름에 발생항목을 계상하여 회계이익을 산출하게 되는데 발생항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허용될 수 있다. 이는 경영자와 정보이용자간 정보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사적정보를 회계이익에 반영하여 계약비용을 낮추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영자의 재량권이 경영자와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동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계정보를 왜곡하려는 강한 경제적 유인을 갖게 된다. 그 결과 회계 분식이 발생하게 되며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회계투명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회계투명성 측정을 위해 이익조정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익조정은 재량적발생액의 크기를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재량적발생액의 크기가 작을 경우 회계투명성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6) 김문철·안영균·정혜영, “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과 대책에 관한연구, 회계저널, 제15권 제3호, 2006, pp.165-194.

남천현(2006)<sup>37)</sup>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ERP시스템을 도입한 기업과 미도입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분석하기 위해 재량적발생액을 측정변수로 설정하였으며 ERP 도입여부와 부채비율, 기업규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증자여부, 손실여부, 총자산증가율, 도입연도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결과 ERP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의 재량적발생액이 유의적인 양(+)의 값으로 나타남에 따라 ERP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이 이익조정을 높게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최승호(2008)<sup>38)</sup>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XBRL을 이용하여 전자 공시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해 역시 재량적발생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XBRL 이용 자발적 공시 집단 더미변수 및 대주주1인지분율, 기업규모, 영업현금흐름, 순손실더미, 부채비율, 증자더미 등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으나 XBRL을 이용한 자발적 공시와 회계투명성과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황인태 외(2008)<sup>39)</sup>는 영국과 호주기업이 2005년 IFRS 도입으로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재량적발생액을 종속변수로, IFRS 도입전후에 따른 더미변수, 기업규모,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총자산순이익률, 총발생액의 절대값, 순손실더미, 대형회계법인 더미변수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그 결과 영국의 경우 재량적발생액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호주는 기존 회계기준과 IFRS간 재량적발생액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은정 외(2007)<sup>40)</sup>는 2005년부터 IFRS를 전면도입한 독일, 영국, 홍콩기업을 대상으로 IFRS 도입이 이익의 질 및 재무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익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재량적발생액 절대값을 종속변수로 두고 IFRS도입연도, 총발생액절대값, 기업규모, 부채비율, 매출액현금흐름, 당기순이익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독일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영국, 홍콩은 전반적으로 이익의 질이 향상

---

37) 남천현, “ERP시스템 도입이 회계투명성에 미친 영향”, 관리회계연구, 제6권 제1호, 한국관리회계학회, 2006, pp.71-101.

38) 최승호, “XBRL을 이용한 재무정보공시가 회계투명성에 미친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50집, 한국경영교육학회, 2008, pp.281-304.

39) 황인태 외, 전게서, pp.93-94.

40) 여은정 외, 전게논문. pp.175-201.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재무비율의 경우 총발생액비율 절대값과 총자산수익률, 현금흐름비율 등이 개선된 방향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IFRS를 도입한 이후 이익의 질 및 재무비율 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다.

## 제2절 회계투명성에 대한 선행연구

### 1. 회계투명성과 기업지배 구조에 대한 연구

기업지배구조는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 경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시스템이다. 경영자, 소유주, 채권자 등 자본시장 주체는 기업 내·외부에서 자본의 조달과 경영통제를 통하여 각 집단의 부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시장참여자들의 효용극대화 행위는 기업과 관련한 정보의 균형과 신뢰성에 기반을 두며, 건실한 기업지배구조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투명한 정보흐름을 보장하여 시장효율성이 제고된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가 열악한 경우,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화되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왜곡되는 원인이 된다. 그동안 법률이나 규제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기업지배구조가 이제는 기업의 성과 제고 및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프로세스로 부각되고 있다. 회계학에서의 기업지배구조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회계 제도의 속성과 제도적 환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즉, 회계투명성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구성요인이며,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 또한 제고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의 도출이 주된 관심 사안이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연구는 Berle and Means(1932)<sup>41)</sup>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현대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형태에서 전문경영자와 주주, 또는 소유경영자와 외부주주와의 대리인 문제는 필연적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 기제는 제품 시장의 경쟁, 노동 시장의 압력 등으로 대표된다. 회계투명성과 관련한 기업지배구조연구는 주로 이사회, 보상계약, 소유구조, 부채계약 등 자본공급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즉 투명한 회계정보는 이사회가 경영자를 올바르게 감독할 수 있게 하고, 경영자의 보상이 공정하게 평가되며, 시

---

41) A. Berle. and G.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New York: Macmillan, 1932.

장에서 진실한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소유지배구조가 외부 주주의 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재량적 발생 즉 회계조작과 분석의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에서 비롯된 이해관계자간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과,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가 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재량적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외부소액주주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로 대표된다.

### 가.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

우선 소유지배구조가 외부 주주의 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해일치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로는 Jensen and Meckling(1976)<sup>42)</sup>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유지분이 집중된 기업일수록 지배주주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 수행이 보다 수월하다고 보고, 이 경우 대리인 문제가 감소될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기업가치에 보다 유익하다고 보았다. 또한 Fama(1980)<sup>43)</sup>는 전문경영자의 등장에 따라 전문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규율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Fama and Jensen(1983)<sup>44)</sup>은 경영자의 재량권 행사는 소유과 경영의 분리정도가 클수록 더 심화된다고 보았다. 또 Morck, Shleifer and Vishny(1988)<sup>45)</sup>는 기업에서 소유와 통제의 분리정도가 약할수록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이 감소하여 주주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Warfield, Wild, and Wild(1995)<sup>46)</sup>의 연구에서는 영미 기업의 경우 전문경영인 체제가 대

---

42) M. Jensen. and W. Meckling,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4, October), 1976, pp.305-360.

43) E. Fama. "Agency Problems and the Theory of the Firm"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 1980, pp.288-307.

44) E. Fama, and M. Jensen,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 1983, pp.301-325.

45) R. A. Morck,. Shleifer, and R. Vishny, "Management and Ownership and Market Valuation: An Empirical Analysis"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 1988, pp.293-315.

46) T. Warfield,. J. Wild, and K. Wild. "Managerial Ownership, Accounting Choices, and

다수이며, 이러한 전문경영인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경영자와 주주의 목표불일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영자들이 재량적 회계발생을 증가시킬 유인이 존재해서, 전문경영자의 지분율과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실증결과 전문경영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주가수익률에 대한 회계이익의 설명력이 높아지고 있다. 즉,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회계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규, 김경민(2001)<sup>47)</sup>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정도가 심화될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행위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이 경우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더 낮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한 후 검증하였다. 그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정도를 경영자지배기업과 소유자지배기업으로 양분하고, 회계이익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권 행사정도는 재량적 발생의 크기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경영자지배기업은 소유자지배기업보다 재량적 발생의 절대값이 더 크며, 이익반응계수가 더 작고, 주가에 대한 현금흐름의 반응계수 및 재량적 발생의 반응계수가 더 작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결과에 대해 그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본질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한국의 일반적 견해와 대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나.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

한편 한 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배주주와 외부 소액 주주들 간의 대리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소유지배구조가 외부주주의 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La Porta, Lopez-de-Silanes, Shleifer and Vishiny(1998), La Porta, Lopez-de-Silanes, and Shleifer(1999) 등은 Berle and Means(1932)가 제시한 지배구조가 전세계적으로 볼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 ① 전문경영자 지배기업과 소유주 지배기업의 분포

---

Informativeness of Earnings”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0, 1995, pp.61-91.

47) 최성규·김경민,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경영자의 이익조정”. 회계학연구, 26, 2001, pp.153-175.

- ② 소유주는 누구인가?(재벌, 정부, 금융기관 등)
- ③ 소유주는 그들의 통제력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 ④ 국가간 지배구조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들은 27개 국가에서 각각 자본금 기준 상위 20개 기업과 최소 \$5억 이상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0%) 이상의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존재여부에 따라 ① 재벌구조, ② 정부, ③ 소유분산형 금융기관, ④ 소유분산형 기업, ⑤ 기타 기업으로 나누어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유분산형 기업은 주주보호제도가 강력하지는되는 영미법 국가들에서 주로 분포하고, 상대적으로 주주보호제도가 취약한 대륙법 국가들에서는 소유집중형 기업, 특히 가족중심의 소유주 지배기업이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그 나라의 법적, 제도적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주주는 일반적으로 피라미드식 기업구조(pyramidal structure) 또는 주식상호보유(cross-holding)를 통해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s)보다 높은 의결권(voting rights)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을 통제하고 있으며, 가족 소유주(재벌기업)는 일반적으로 직접 경영에 참가하고 있고 다른 대주주들이 이들을 잘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소유구조가 집중 될수록 외부소액주주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약한 특징이 있고 이 경우 경영자나 지배주주는 자신의 사적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외부 소액주주들에 대한 이익침해가 더욱 심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La Porta et al.(2000)<sup>48)</sup>의 연구에서는 기업지배는 외부 투자자들이 내부자(경영자, 임직원)들에 의해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방어하는 기제의 집합이라는 정의 하에 국가간 투자자 보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국가간 법적 전통과, 역사적 요인이 투자자 권리 보호, 소유권과 지배권,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영미권 국가들의 불문법(common law) 계통이 프랑스, 독일 등의 성문법(civil law) 체계보다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규제에 있어 보다 우월하고, 강력한 투자자 보호 기제가 있을수록 기업의 지배주주가 외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48) R. La Porta, "Agency Problems and Dividend Policies a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e, 55(1), 2000, pp.1-33.

박종일(2003)<sup>49)</sup>은 외부소액주주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과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일치가설의 대립관계, 즉,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재량적 발생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실증연구 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이해일치가설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익조정 크기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는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가설 하에 종속변수를 수정된 Jones 모형으로, 독립변수를 대주주 1인지분율로 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재량적 발생, 즉 이익조정의 크기와 방향성을 모두 고려하였을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과 재량적 발생 사이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익조정의 크기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유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는 이익침해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 다. 현금흐름권과 의결권의 괴리에 대한 연구

한편 Claessens, Djankov and Lang(2000)<sup>50)</sup>은 동아시아 9개국의 2,980개 기업의 기업지배 구조를 조사하였고, 회계투명성 측정의 한 방법으로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s, 명목지분율)과 의결권(Voting rights, 실질지분율)을 계산하여 어떤 기업에서 현금흐름권과 의결권의 차이가 커지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가족구조 기업이거나 소규모기업일수록 의결권과 현금흐름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2/3 이상의 기업이 단일최대주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으며, 소유집중형 기업의 경영자는 대부분 지배주주의 친인척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래된 기업일수록 가족구조기업으로 나타나서 Berle and Means(1932)<sup>51)</sup>의 예측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Fan and Wong(2002)<sup>52)</sup>은 Claessens, Djankov and Lang(2000)의 연구에서 제시된 지분율

---

49) 박종일,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최대주주 지분율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8권 제 2호. 2003.

50) S. Claessens., S. Djankov, and L. Lang.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East Asian corporatio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8, 2000, pp.81-112.

51) Berle & Means, op. cit.

52) J. Fan. and T. Wong,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and the Informativeness of Accounting Earnings in East Asia”.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 2001, pp.401-425.



계산방법을 통해 동아시아 7개 국가에서 회계정보의 주가설명력을 이용하여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정보유용성 간에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영미와는 달리 소유주(controlling owners)가 곧 경영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리인 문제는 이들 소유경영자와 외부주주(outside investors) 간에 발생하게 되고, 이때 소유경영자는 기업을 통제함으로써 외부주주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사적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는 가설 하에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높은 기업일수록, 현금흐름권(명목지분율)과 의결권(실질지분율)의 차이가 클수록, 이익반응계수가 낮아진다는 실증결과를 얻었다. 다시 말해 소유경영자의 지배력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은 저해되고 이에 따라 회계이익의 정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라. 지배구조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황인태(1994)<sup>53)</sup>는 소유구조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들이 최고 경영자(CEO)의 보상계약 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대주주의 존재가 경영자의 행위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주주의 주식소유가 집중되어 있을수록 CEO의 보상계약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며, CEO가 해당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할수록 대리인 문제는 줄어들고 또한 CEO는 일반주주와는 달리 위험분산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위험회피 차원에서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수록 보상계약 중 주식비율을 낮추려고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였다.

손성규(1999)<sup>54)</sup>는 실증회계이론을 토대로 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소유경영자와 비소유경영자 중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이 선택하는 회계변경이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검토하였다. 즉 각자의 부와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소유경영자는 해당기업의 회계이익을 하향(이연) 보고하고, 비소유경영자는 회계이익을 상향(조기) 보고하는 유인이 있는지 연구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소유구조와 경영진 구성은 회계방법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황인태, “소유구조가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19, 1994, pp.227-245.

54) 손성규, “소유구조와 경영진 구성이 회계방법의 변경에 미치는 영향”. 1999.

## 2. 국가간과 기업간의 회계투명성 차이에 대한 연구

한 국가의 금융부문의 발전여부는 그 나라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예로 Levine(1997)<sup>55)</sup>의 연구를 들 수 있다. Levine은 자금유통이 원활하고, 위험관리가 용이하며, 투자기회의 판단 근거를 제시해주고, 기업과 경영자를 감독, 규제하며,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원의 분배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금융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틀의 근거는 잘 확립된 금융부문은 곧 회계투명성을 높여서 정보 비용과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 국가별 정보환경의 차이가 경제 발전과 효율성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이론들에 비해 이를 검증하는 실증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오지 못하였다.

또한 Bushman and Smith(2003)<sup>56)</sup>는 한 국가의 기업 공시제도의 질과 경제적 성과와는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가별로 기업공시 제도와 경제적 효율성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국가간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은 기업 공시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이러한 연구의 단점으로는 설명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높고, 측정 오차가 클 가능성이 높아서 결과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CIFAR index와 같은 지수들은 다른 국가 특성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index 내에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해석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

Rajan and Zingales(1998)<sup>57)</sup>는 회계정보가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등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여 외부로부터의 자본조달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외부 자본에

---

55) R. Levine,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Views and Agenda".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2), 1997, pp.688-726.

56) R. Bushman. and A. Smith. "Transparency,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Economic Policy Review 9(1), 2003, pp.65-87.

57) R. Rajan, and L. Zingales. "Financial Dependence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8(3), 1998, pp.559-586.

대한 의존이 높은 산업일수록 회계투명성 제고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들은 CIFAR 지수를 이용하여 국가별 회계투명성의 정도를 측정된 결과, CIFAR 지수와 외부자본조달에 대한 산업수요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CIFAR 지수가 높은 국가들의 산업이 외부자본조달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연구로 Carlin and Mayer(2000)는 CIFAR 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외부자본조달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산업 GDP 성장과 R&D 지출의 성장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Love(2000)<sup>58)</sup>는 회계투명성이 높을수록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관련된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내부 자본조달과 외부 자본조달시 비용차이를 감소시켜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40개 국가의 개별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투명성이 자본조달시 제약을 완화시키고 자본할당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관련 내부/외부자본조달의 민감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Wurgler(2000)<sup>59)</sup>는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의 측정치로 부가가치 탄력성을, 자본시장의 발달정도의 측정치로 GDP 대비 시가총액을 이용하여 부가가치 탄력성과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부가가치 탄력성과 투자자 권리보호정도와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가에 반영되는 개별기업의 정보량의 정도와 부가가치 탄력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회계투명성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외에도 CIFAR 지수를 이용한 연구들 중에 Levine, Loayza, and Beck(2000)의 연구와 Lombardo and Pagano(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Levine, Loayza, and Beck(2000)<sup>60)</sup>은 CIFAR 지수로 측정된 법적, 제도적 환경과 회계 시스템의 국가별 차이가 자본시장과 회계투명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법과 회계 제도의 개혁을 통해 투자자의

---

58) Love, Inessa. "Financial Development and Financing Constraints: International Evidence from a Structural Investment Model".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Vol. 16, Iss.3, 2000, p. 765.

59) J. Wurgler. "Financial Markets and the Allocation of Capital".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8(1-2), 2000, pp.187-214.

60) R. Levine., N. Loayza, and T. Beck.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Growth: Causality and Cause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46, 2000, pp.31-77.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을 강화하며,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Lombardo and Pagano(2000)<sup>61)</sup>의 연구에서는 주식 수익률이 법 절차의 효율성과 제도적 환경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또한 국가별 회계기준의 차이가 기업공개시 주식의 저평가 현상(IPO underpricing)에 대한 설명력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는 일반 개인 투자자와 보다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 문제 때문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보다 적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들의 기대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기업공개시 주가가 저평가되는 데, 이러한 현상은 회계 실무가 불투명할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 재무회계보고 규제와 제도적 환경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Ball and Robin(1999)<sup>62)</sup>과 Ball, Kothari, and Robin(2000)<sup>63)</sup>은 회계 이익과 경제적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일치 정도가 성문법 체계 국가와 불문법 체계 국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성문법 체계 국가보다 불문법 체계 국가에서 회계 이익이 보다 적시에 경제적 손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의 이유로 성문법 국가에서는 재무보고이익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권이 크고,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소송비용을 경영자 또는 감사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경제적 손실을 회계이익에 반영할 유인이 적다는 점을 들고 있다.

Ali and Hwang(2000)<sup>64)</sup>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6개 국가의 제조기업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시장 중심적인 금융시스템 환경보다 은행 등 금융기관 중심적인 금융시스템 환경의 국가에서 재무보고서의 가치관련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 중심적인 환경에서는 몇몇 은행이 대부분의 기업자본을 공급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

61) D. Lombardo. and M. Pagano, Legal Determinants of the Return on Equity. Universit? di Salerno CSEF Working Paper no. 24 and CEPR Discussion Paper no. 2276. 2000.

62) R. Ball. and A. Robin. Time-Series Properties of Accounting Earnings: International Evidence. 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Rochester and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1999.

63) R. Ball., S. Kothari, and A. Robi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Institutional Factors on Properties of Accounting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9(1), 2000, pp.1-51.

64) A. Ali., and L. Hwang. "Country-Specific Factors Related to Financial Reporting and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Data".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8(1), 2000, pp.1-21.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재무보고서 공시자료의 수요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들의 연구에서는 회계기준 제정 작업에 민간부문이 참여하지 않는 국가의 재무보고서 가치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기관의 입안자들의 주목적이 조세 징수나 거시적 경제계획 등 정책적인 면에 있기 때문이라는 가설과 일치하고 있다.

### 3. 회계투명성의 경제적 영향

Bushman, Piotroski, and Smith(2001)<sup>65)</sup>는 기업의 투명성을 기업에 대한 정보 이용가능성, 시장참여자에게 정보를 생산, 수집, 확증하여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차원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기업 투명성의 3가지 구성요소로 재무회계 정보 공시의 품질, 적시성, 신뢰성 등의 기업 공시와 관련된 사항, 재무분석가의 수, 내부 거래 관련법률 등의 사적 정보 획득 및 전달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미디어 활용가능성 및 미디어 소유권 등의 정보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재무 투명성(Financial transparency)과 지배 투명성(Governance transparency)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재무 투명성은 공기업 여부, 몰수 위험 등 정치적인 규제환경과 관련되어 있고, 지배 투명성은 투자자 권리 보호, 소유권, 사법제도의 효율성 등 법적, 제도적인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ushman and Smith(2003)<sup>66)</sup>는 사업성 여부의 식별(project identification), 기업통제 역할(governance role), 정보비대칭 해소(reduction in information asymmetries)라는 3가지 채널을 통해서 재무회계정보가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모형을 설계하였다.

---

65) R. Bushman., J. Piotroski, and A. Smith What Determines Corporate Transparency? 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Chicago, 2001.

66) Bushman & Smith, op. cit. pp.65-87.

## 제4장 베트남기업의 회계투명성 현황

### 제1절 베트남의 회계제도

#### 1. 베트남의 회계제도 관련 규정

베트남은 1990년 이후 경제개방과 더불어 회계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며, 최근 많은 회계 관련 규정들이 발표되었다. 현재 베트남 회계기준과 관련한 주요 법은 Accounting Law(회계법), Vietnam accounting system(베트남회계시스템), 베트남회계시스템의 일부 수정사항에 관한 시행령 Circular 55, 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회계기준서) 및 다양한 예규(Official letter)로 구성되어 있다.<sup>67)</sup>

베트남의 회계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본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이미 발표된 회계기준서의 경우 IFRS와 큰 차이가 없으며, 제정되지 않은 영역도 장기 과제로 점차 개정될 예정이다. 베트남의 현행 회계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베트남의 현행 회계 관련 법률 및 규정

구분	명칭		공표일
회계법	Law on accounting 3/2003/QH11		2003/6/17
회계법의 정서	Decree 129/2004/ND/CP		2004/5/31
회계법 결정문	Decision 1141 TC/QD/CDKT_ 법인의 회계처리 시스템공표		1995/11/1
	Decision 149/2001/QD-TTC_베트남	VAS 2: 채고자산 VAS 3: 유형자산 VAS 4: 무형자산	2001/12/31

67) 레티킴 오영, 「베트남과 한국회계제도의 비교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27-28.

	회계기준서 4개	VAS14: 수익	
	Decision 165/2002/QD-TTC _베트남 회계기준서 6개	VAS 1: 개념체계 VAS 6: 리스 VAS10: 환율변동의 회계 처리 VAS15: 공사계약 VAS16: 차입원가 VAS24: 현금흐름표	2002/12/31
	Decision 234/2003/QD-TTC _베트남 회계기준서 6개	VAS 5: 투자자산 VAS 7: 특정지분투자 VAS 8: 조인트벤처투자 지분 VAS21: 재무제표의 표시 VAS25: 결합재무제표와 종속회사 투자 VAS26: 특수관계자 공시	2003/12/30
	Decision 12/2004/QD-TTC_ 베트남회계기준서 6개	VAS17: (법인)소득세 VAS22: 은행등 유사금융기관의 재무제표의 공시 VAS23: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사건 VAS27: 중간재무보고 VAS28: 사업부문 보고 VAS29: 회계원칙,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오류	2005/2/15
	Decision 59/2004/QDBTC_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경리장(Chief accountant) 대리 및 관련한 자격 등		2004/7/9
회계법시행규칙	Circular 122/2004/TT-BTC_ 외국인투자법인 적용 회계시스템 Circular 89/2002/TT-BTC_회계기준서 시행규칙 Circular 105/2003/TT-BTC_회계기준서 시행규칙 Circular 23/2005/TT-BTC_회계기준서 시행규칙		2004/12/22 2002/10/9 2003/4/21 2005/3/30
별과 규정	Decree 185/2004/ND/CP Circular 120/2004/TT-BTC		2004/11/4 2004/12/15

자료: 레티킴 오앤, 「베트남과 한국회계제도의 비교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27-28.

## 2. 베트남 기업회계제도의 특징<sup>68)</sup>

베트남 기업회계기준은 기본적인 계정과목이나, 내용에 있어서 한국 또는 미국 기업회계 기준과 비교할 경우 중요하게 다르지는 않으며, 최근 지속적인 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제회계기준과의 많은 부분에서 없다. 아래에서 간략하게 베트남 회계기준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계정과목이 단순하다.

현재까지 베트남의 경제 규모가 작고, 거래 형태가 단순하여, 복잡한 거래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바, 한국보다는 사용되는 계정과목이 단순하다.

### 2) 자본거래에 대한 내용이 단순하다.

베트남에는 주식회사 형태 보다는 유한회사, 국영회사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자본거래에 대한 내용이 매우 단순하다. 적립금 회계가 없으므로 통상적인 외국인 회사의 경우 자본금 및 잉여금 계정과목이 자본회계처리의 전부이다.

### 3) 보조금 회계가 복잡하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회사들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조금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 보조금과 관련된 회계처리 규정이 많다. 그러나 외국계 회사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4)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부 복잡한 회계처리(이연법인세, 지분법 적용, 공사수익인식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68) 조군제, “베트남의 기업회계와 조세제도에 관한 고찰”. 국제회계연구, 제27집, 2009, pp.272-273.



#### 5) 표준 양식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Vietnamese accounting system).

회계 관련 표준회계처리지침이 정부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으며, 규격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계정과목별로 code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관련회계처리는 이를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므로 한국보다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계정과목이름 보다는 code 번호가 더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 6) 기본재무제표의 차이

한국은 기본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이나 베트남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변동표와 같은 내용이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처럼 부가되어 표시된다.

#### 7) 재무제표는 공시되지 않는 비밀문서이다.

한국의 경우 외감업체인 경우 재무제표가 공시되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비밀문서로 간주하고 , 공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쟁업체, 또는 기타 업체의 재무제표를 입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편, 외국인투자법 상 감사보고서는 투자허가기관, 세무서 및 통계청에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8) 경리장(Chief accountant)은 “경리장 자격증” 이 있어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경리부장은 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리부장 자격증” 이 있어야 한다. 이는 경리부장의 직위가 회사에서 핵심적인 자리에 해당되므로, 자격 소지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인의 경우 경리부장의 경우 일정기간 회계관련 업무종사 및 교육기관 이수, 시험합격을 하여야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 거주기간, 자격증 및 경험과 관련한 증빙을 요청하는 등, 2005년에 좀 더 강화한 자격요건을 발표하여 경리장 등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9) 전결 규정이 없다.

모든 문서에는 경리부장과 사장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로써의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전결 처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 3. 베트남의 회계제도 요약<sup>69)</sup>

### 가. 매출인식과 비용인식

일반적인 제품판매수익, 할부판매수익, 용역수익 및 공사수익과 관련하여 매출인식 방법은 한국과 동일하나, 아파트 등의 분양공사와 관련한 수익인식기준은 한국과 같이 완성에 의하여 인식하는 방법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비용의 인식은 한국과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증빙이 없는 비용은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다.

### 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유형자산은 한국과 같다. 그러나 베트남은 토지가 국가소유이므로, 토지는 무형자산으로서 토지사용권으로 표기한다. 이것은 토지 국유화를 표방하는 정치 특성상, 토지 소유권의 인정을 부인하고 사용권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무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가 2004년에 도입되었다. 창업비 및 개업비는 특별하게 향후 수익창출활동 금액과 명확하게 연관관계가 있지 않는 한 한국과 동일하게 대부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업비의 경우 3년의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69) 상계논문, pp.273-274.

## 다. 충당금계정과 퇴직급여충당금

베트남에도 각종 충당금 규정이 있어 한국과 특별한 차이는 없다. 다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당금 설정 관련규정에 의하여 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에 0.5개월의 급여만을 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회사부담분 사회보장기금은 급여의 15%로 전액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 라. 이연 법인세와 자본금

2005년부터 이연법인세 기준서를 발표하였으며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베트남에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회사의 출자금이고, 실제 납입금액만 표시된다. 베트남에서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납입자본금의 확인을 위해서는 투자청에 보고하는 투자완료보고서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권자본금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예상금액을 투자청에 신고한 투자허가서상 투자예정금액이다. 외국인 회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 4. 한국과 베트남의 기업회계제도의 주요차이 요약

## 가. 손익항목

### (1) 매출인식

베트남도 최근 수익인식과 관련한 회계기준서를 발표하여 한국과 수익인식에 있어서 차이점은 없다. 일반적인 제품판매수익, 할부판매수익, 용역수익 및 공사수익과 관련하여 매출인식방법은 한국과 동일하나, 현재 아파트 등의 분양공사와 관련한 수익인식기준은 한국

과 같이 진행율에 의하여 인식하는 방법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 (2) 비용인식(매출원가 및 기타비용)

회계적으로는 한국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인식한다. 다만 증빙 없는 비용은 회계처리를 일반적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 나. 대차대조표 항목

#### (1) 각종 충당금

베트남에도 각종 충당금(대손충당금, 재고자산충당금 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 한국과 특별한 차이는 없다. 다만 세무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당금 설정 관련규정에 의하여 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① 토지

베트남은 토지가 국가소유이므로, 토지라는 유형계정과목 대신에 무형자산으로서land use right로 기표한다. Land use right 는 토지 국유화를 표방하는 정치 특성상, 토지소유권의 인정을 부인하고 사용권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 ② 건물 및 기계장치 등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가 2004년 중 도입되었으며, 개발비 등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창업비 및 개업비는 특별하게 향후 수익창출활동 금액과 명확하게 연관관계가 있지 않는 한 한국과 동일하게 대부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업

비(Establishment Cost)의 경우 3년의 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할 수 있다.

〈표4-2〉 한국과 베트남의 자산관련 회계처리 규정 비교

구분	K-GAAP	V-GAAP
계정과목	유형자산	무형자산 또는 장기선급금
취득원가	취득금액 및 정지비, 등록비 등	동일
감가상각	없음	정액법
내용연수	해당사항 없음	사용가능기간
취득원가	취득금액 및 관련비용	동일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정율법, 생산량 비례법 및 기타 합리적 방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및 정율법(정액법의 2배 초과 안됨)
내용연수 범위	경제적 내용연수(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상 규정을 따름)	경제적 내용연수(일반적으로 Depreciation law 상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신고 )
자본적 지출	1 백 만원 기준	1천 만동(약 650불)

자료: 레티킴 오영, 「베트남과 한국회계제도의 비교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39.

### (3) 이연 법인세차(대)

기존까지는 이연법인세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이연법인세 기준서를 발표하였으며 2005년부터 적용예정에 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에는 이연법인세 적용의 예외규정이 있으나, 베트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4) 퇴직급여충당금

한국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나, 일년에 0.5개월의 급여만을 충당금으로 설정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회사부담 분 사회보장기금(급여15%)는 한국과 동일하게 전액 당기 비용으로 기표되며, 퇴직보험예치금과 같은 제도는 없다.

## (5) Not-for-profit expenditure

영업무관 관련비용 지출분으로서,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와 상계 처리되는 자산 계정과목이다.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출 발생시, 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일종의 미수금으로 정리한 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받은 보조금과 상계 처리한다. 한국의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중 한가지와 비슷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사항은 없을 것이다.

## (6) 자본항목

Paid in capital(한국의 납입자본금)은 유한회사의 출자금이고 주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실제 납입 금액만 표시된다. 한국에서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납입 자본금이 확인되지만, 베트남에서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납입 자본금의 확인을 위해서는 투자활동 완료 후, 투자청(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보고하는 투자완료 보고서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통한 간접확인 방법밖에 없다.

Legal Capital(한국의 수권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개념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전에 투자 예상금액을 투자청에 신고하며, 투자허가서 상 자기자본 투자예정 금액이 Legal Capital이다. 따라서 Legal Capital은 실제 납입자본금이 아니고, 수권 자본금이다.

## 제2절 베트남 상장기업의 회계 투명성

### 1. 베트남 경제의 투명성

회계 투명성의 부족에 따른 베트남 경제의 비효율성은 매우 심각하다. MaiLinh사태나 Vinashin사태와 같은 사례는 물론이고, 그 외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 흔히 베트남 증시에서 주가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과 주장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들의 투자 자세에 문제가 있고, 베트남 증권시장은 시장으로서의 효율성 (market efficiency)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회계 투명성 부족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회계의 투명성이 증진되어 기업의 건실한 운영은 물론 운영결과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배분이 사전적으로 약속될 수 있고, 사후적 이행이 확인 될 수 있다면, 주가는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고, 기업들은 보다 쉽게, 즉 낮은 자본비용으로 보다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기업과 경영진의 경영성과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투자실패의 위험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량 기업의 성장과 불량 기업의 퇴출이라는 조정기능이 시장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회계정보 공시가 발휘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즉 회계정보의 공시가 법으로 규정되어 정보를 공개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경제 효율성의 근간으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베트남 경제의 투명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 부패지수와 뇌물공여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국가의 부패정도 및 뇌물공여지수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의 투명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부패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세계은행,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Freedom House, PwC, 영국의 이코노

미스트 그룹 소속 경제전략연구소(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등의 자료를 토대로 국가별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다. 국제투명성위원회의 2010년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에서 베트남은 178개국 중 116위를 차지했다. 조사 국가들 가운데 국가별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핀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싱가포르 순이다.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의 부패지수를 보인 나라는 페루와 그리스 등이다.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부패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도 107위, 2006년도 130위, 2007년도 123위, 2008년도 121위, 2009년도 120위, 2010년도 116위였다. 특히, 최근에는 매우 좋지 않은 부패지수를 보여 주고 있다.<sup>70)</sup>

국제투명성위원회는 뇌물공여지수(BPI)도 발표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2010년 5월 발표된 2010 BPI에서 조사대상 21개국 중에서 18위(3.9)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국제 사회에서 뇌물을 제공하는 관행의 수준이 높은 나라로 꼽혔다.

이와 같은 부패지수나 뇌물공여지수 등을 살펴볼 때 베트남 사회 전반적으로 불투명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 2. 베트남 기업의 회계투명성

기업에 대한 적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가 시장에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여 초래되는 경제의 비효율성은 그 나라의 회계투명성 자체는 물론 부패의 관행과 기업의 지배구조 등에 의해 문제의 심각성이 보다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로 인해 경영진의 전횡이 가능할 경우, 경영진이 일반주주나 기타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한다. 특히, 회계의 투명성이 낮으면 경영진의 전횡이 심각해져서 경제의 비효율성(welfare loss)이 보다 커질 수 있다. 맥켄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라 예상되는 주가의 상승가능성에 대한 진단은 회계투명성, 기업지배구조, 부패수준 등이 야기하는 문제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의 한 예이다.<sup>71)</sup>

---

70) 덩티링, 「베트남 상장 주식회사의 재무공개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2. pp.31-32.

71) 상계논문, p.32.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는 회계투명성이 낮을수록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본시장은 이에 따른 문제를 이성적으로(rationally) 예상하여 회계투명성 정도가 낮은 기업을 저평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회계투명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경영진의 경영약속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 등,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보다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의 정보비대칭 또는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 및 조사 결과, 특히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08년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아시아 6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아시아 국가에 투자하고 있는 64명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평가하였다.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나라를 5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미국은 4.0 내지 4.5점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맥킨지가 평가한 아시아 7개국 중 베트남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특히 이들 6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미국 기업지배구조 평가치의 절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각 국가별 기업지배구조 평가점수는 일본 2.6점, 대만 2.5점, 한국 2.0점, 태국 1.7점, 말레이시아 1.5점, 베트남 1점, 인도네시아 1.1점이었다. 맥킨지는 이사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기업공시 관행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이나 유럽 지역 기업은 주가가 18%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아시아지역 기업은 25% 가량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제3절 베트남 기업의 분식회계 현황

2002년은 회계투명성이 위기를 겪은 한 해였다. 미국에서는 Enron과 Worldcom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부정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Arthur Andersen과 같은 유명한 회계법인이 문을 닫기도 했다. 베트남에서도 회계부정을 막지 못한 일부 회계법인이 거액의 소송을 당하는 등 여러 기업의 부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 수는 약 689개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이 재무제표 공개를 하지 않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도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분식회계란 고의적 또는 오류로 인하여 한 기업의 재무정보를 왜곡하여 성과를 부풀리거나, 재무 상태를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재무적 손실을 입히는 부정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분식회계의 개념에 대하여 Mulfordd와 Comiskey는 한 기업의 성과를 어루만져,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기업성과에 대해 새로운 이미지를 갖도록 “화장”하는 재무적 숫자게임이라 하였고(신동표, 강남규, 2004),<sup>72)</sup> Elliott와 Willingham(1980)<sup>73)</sup>은 분식회계란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오도시킴으로써 투자자와 채권자에 재무적 손실을 입히는 부정행위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회계분식은 경영자나 회계작업자의 고의성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크게 오류(error)와 부정(Fraud)으로 분류되는데, 광의의 의미에서는 둘 다 회계분식으로 간주된다(유형자, 2005).<sup>74)</sup> 분식회계란 고의적 또는 오류로 인하여 한 기업의 재무정보를 왜곡하여 성과를 부풀리거나, 재무 상태를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재무적 손실을 입히는 부정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분식회계는 기업들이 지금 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 자금을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진다. 즉, 자금 차입이 쉬워질

72) 신동표·강남규, 「은밀한 숫자놀음 분식회계」 국립증권경제연구소, 2004, p.8.

73) R. Elliott, & J. Willingham, “Management Fraud : Detection and Deterrence”. Petrocelli, Vol.23, No.2, 1980, pp.1-25.

74) 유형자, 「분식회계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4.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기업은 회계장부를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일부 대규모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분식회계 관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서는 회사내부 관계자, 정부당국자, 중앙은행 등 대내외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타 기업 재무제표와 비교분석 등을 통해 재무제표 분석을 하고 있다.<sup>75)</sup>

분식회계의 형태는 과거 수익과 자산의 과대계상 및 비용과 부채의 과소계상을 통해 장부를 조작한 사례가 많았던 반면, 점차 경제 환경이 복잡해지고 거래내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파생상품, 역외펀드, 관계회사와의 거래, 합병 및 분할과 같은 거래로 인한 분식회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sup>76)</sup>

베트남의 회계제도는 1994년 경제위기 이후 크게 개선되어 왔으며, 그 결과 회계제도가 국제적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이 실제 기업현장에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최근의 MaiLinh주식회사, REE, Bibica, Sacom, Hapoco. 등의 회계부정이 밝혀졌으며, 그 영향은 국가경제차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아울러 국제자본의 유출을 가져와 결국에는 경제위기를 초래한 쓰라린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회계정보는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기본 자료이다. 그러므로 분식회계는 소문만 나더라도 기업의 실적 및 재무상태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곧바로 주가하락으로 이어진다. MaiLinh주식회사가 분식회계 파문 후 주가가 42% 하락하였으며, 베트남 상장기업 중 분식회계가 적발된 기업들의 주가가 평균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주식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궁극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되며, 결과적으로 도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분식회계는 주식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까지 저해하게 된다.

---

75) 이상주조용언, “회계감사인의 도덕발달수준 향상을 위한 회계교육의 윤리개입방법”. 신라대학교 논문집, 47, 1999, pp.131-152.

76) 하혁준, 「분식회계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장, 등록기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p.16-20.

2010년 베트남의 주요 공기업들에서 7억600만 달러(한화 약 8천억원)의 회계부정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간신문 뚜오이쩌는 12월 29일 감사원 소식통의 말을 빌려 지난 한 해 조선공사(비나신), 전력공사(EVN), 선타광물공사(비나코민) 등 주요 공기업들에서 132건, 7억600만 달러 규모의 회계부정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비나신의 경우 밝혀진 부채 규모만 45억 달러인데다 지난해 말 6억 달러 외채의 1차 상환분 6천만 달러에 대한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과 관련, 집중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나신의 회계부정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회계 부정사례 중에는 베트남 최초의 정유소인 중부 팡응아이성 중꾸어엿정유소 건설사업과 남부 호치민시의 투티엠대교 건설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 규모가 큰 비나신과 EVN은 올해도 단위 사업장별로 집중, 정밀감사를 받을 것이라면서, 2010년 회계부정에 대한 종합감사보고서와 이에 대한 조치는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외 진출업체 관계자는 국영기업의 회계부정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이는 책임의식 결여 및 범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국가경쟁력과 국제신인도 추락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77)</sup>

---

77) 덩티링, 전계논문, pp.34-35.

## 제5장 베트남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 제1절 한국의 회계투명성 확보방안 고찰

한국이 IFRS로 살림 장부를 바꾼 이유는 기업의 회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회계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IFRS를 도입하기 이전인 2010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에서 한국은 종합 22위를 기록했지만, 감사 및 회계부문에서는 139개국 가운데 95위에 그쳤다. 스위스 국가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 평가에서도 한국 회계투명성 순위는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권이었다.<sup>78)</sup>

기업의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자의 윤리적 경영과 투명한 기업이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인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회계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조합해 보면, 제도적 개선방안, 구조적 개선방안, 시행상의 개선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79)</sup>

#### 1. 제도적 개선 방안

##### 가. 회계제도 개선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회계제도는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국제적 수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회계제도 개선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검토하여 회계정보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작성되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여 투명회계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78) 조선일보, “IFRS 도입2년: 회계투명성 좋아졌지만.., 일부 조항 논란”. chosunBiz.com., 2013. 5. 21(기사).

79) 조병연·임재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분식회계 실태분석”. 국제회계연구집, 제28집, 2009, pp.199-219. .

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야는 크게 회계정보에 대한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강화와 회계정보의 공시 강화 그리고 회계법인의 감사책임 강화이다.

주요 골자는 형식적이었던 대주주와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주주나 임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상장 등록기업 모두 2003년 회계연도 말부터는 연간뿐만 아니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도 자회사 실적까지 감안한 연결재무제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회계정보에 대한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강화 분야에선 CEO, CFO의 투명 회계인증 의무화, 회계공시서류 허위 기재시 대주주 등 업무 지시자에 대한 민사책임부여 등이다.

## 나.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피감사 회사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 스톡옵션 등을 소유한 경우, 피감사 회사와 대출 또는 차입거래가 있는 경우 피 감사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알선하거나 거래증개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피감사 회사의 특정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감사인 이 감사수임을 거절하도록 하여 감사인과 기업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 훼손을 방지해야 하며 감사선임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그 역할을 제고하여 감사인에 대한 피 감사 회사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감사선임위원회는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감사범위, 감사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 감사인 이 평가 및 보고 등의 책임을 맡아 투자자를 위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 다. 집단소송제 도입

중대한 회계분식, 시세조종을 통한 불공정거래에 관한 소액주주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증권분야 집단 소송제를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도

입하여 시행하게 됐다. 집단소송제란 주식투자자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집단소송제의 추진 배경은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부실공시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소송비용이 너무 커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또한 대주주를 견제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이외에도 정부는 집단소송제가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장치가 확보됨으로써 투명경영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라. 감리제도의 감독강화

감리란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회계감리란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회계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해 회계감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sup>80)</sup> 이는 회계감리의 감독강화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구축을 통해 원활한 자본조달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계감리의 감독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분식회계에 대한 엄단을 위해 조치대상자를 확대하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시스템의 검사결과를 공개하여 부실한 회계법인의 시장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sup>81)</sup>

---

80) 조세일보, 감리 사각지대 '비상장 기업', 회계감독 강화, 조세일보, 2013. 5. 7(기사).

81) 금융감독위원회, 2013년 업무보고, 2013, pp.35-36.

## 2. 구조적 개선방안

### 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방식의 지분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분구조는 그룹의 한 개 계열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타 기업까지 영향을 끼쳐 그룹전체에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투자와 사업의 역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지주회사로의 변환이 있다.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종속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로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 한다. 지주회사로의 변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설립과정에서 대주주들이 보유하던 사업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바꿔 ‘대주주→지주회사→사업자회사’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주회사 중심으로 단순해지고 이로 인해 경영이 투명해짐에 따라 보다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만들어져 올바른 의사 결정에 기여 할 수 있으며, 계열사 간의 출자가 금지되어 순환출자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또한 지주회사는 배당금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자회사의 배당금 지급이 늘어나고, 지주회사의 주식보유로 시장에서의 유통물량이 줄어들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기여한다. 하지만 지주회사는 기업지배에 의한 독점형성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100%미만으로 유지해야하고, 자회사는 지분을 50%(상장사 30%)이상 소유해야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손자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안 된다는 행위제한의 의무가 주어진다.

기업지배구조는 통상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한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을 둘러싼 환경 전체를 상징하는 광의의 해석이 있고 기업내부에 초점을 맞춘 협의의 해석이 있다.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경영 환경에는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물론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 체제, 관행 및 의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좁게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 통제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동안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의 장기 안정 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에 우리나라도 사회이사제도의 도입, 감사의 독립성 제고, 회계제도의 선진화, 주주 권리의 강화, 금융 감독 체계의 강화 등을 기본 골격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나. 재무제표 수정기회의 부여

미국의 경우 언제든지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회사가 스스로 재무제표를 다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재무제표 상 잘못을 바로 잡더라도 무거운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 대신 재무제표 상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와 그 책임은 손해배상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분식회계를 일단 저지른 자일지라도 수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하나의 피난처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이다.<sup>82)</sup>

그러나 재무제표 수정기회를 악용할 우려도 적지 않다. 즉 특정 목적에 의하여 분식회계를 한 후 오류정정 신고를 통해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오류 및 정정에 대한 기업의 책임자와 회계감사의 책임 등을 강화하여 악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3. 시행상의 개선방안

### 가.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위상확립과 국민적 합의 도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주체는 정부인 경우와 민간제정기구인 경우가 있으며, 한국에는 1999. 9. 이후 민간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고있다. 그러

---

82) 이상천, 「분식회계의 실태와 방지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24-25.

나 권위부족과 금융감독원과의 상이한 해석으로 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양 기관의 기능적 조화가 필요하다.<sup>83)</sup> 한국회계연구원은 국제적인 수준의 회계기준 제정과 제정된 기준의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며, 재정자립의 추구하고 독립성 및 전문성의 계속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sup>84)</sup> 기업 활동의 복잡화 고도화 국제화로 인해 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환경보전과 재무제표 이외의 경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의 회계적 공시와 분기별 보고서, 임시보고서, 공시매체의 다양화, 예측보고의 공시, 부문별 보고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무공시제도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정규적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내용 뿐 아니라 회계기준의 제정절차도 투명해야 한다. 회계규제를 바탕으로 관련 경제법규가 수립되어 사회 하부구조로서의 회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침으로써 회계규제가 수립되어야 한다.<sup>85)</sup> 회계투명성을 위하여 제정 기구는 국제적으로 적합성이 있는 수준 높은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나. 기업의 높은 윤리의식 강화

오늘날 경제 환경이 어려울수록 터지는 각종 금융 사고들도 기업 및 개인의 윤리의식 결여에 비롯된다. 윤리경영은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 수행은 물론이고 사회적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도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로 인정하고 주체적인 자세로 기업윤리 준수를 행동원칙으로 삼는 경영을 말한다. 윤리경영은 기업이 막연히 도덕적으로 되자는 개념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나 비용구조를 윤리적인 기준에 맞도록 바로 잡아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오늘날 윤리경영이 기업들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책

83) 강시진, “회계정보의 투명성 재고방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 자료, 2002. 12. 13.

84) 김경호, “회계투명성과 기업회계기준”,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2002. 4.

85) 이원일,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48-51.

임의 방관에 기인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 결코 기업에게 법과 질서를 지킴으로 인한 불이익이 아닌 기업의 또 다른 사업기회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윤리 경영은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 수행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이 수행까지도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로 인정하고 주체적인 자세로 기업윤리 준수를 행동원칙으로 삼는 경영을 말한다.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여 사회적으로 정당한 역할이나 활동을 하여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게끔 기업전반에 걸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다. 내부 고발자 보호 및 포상제도**

갈수록 지능적으로 발전한 분식회계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분식회계에 대해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 고발자 제재감면제도 개선, 신고자 보호제도의 확충,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

## 제2절 베트남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한국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베트남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 제도적 개선방안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회계부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재량적으로 회계정보를 왜곡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국제화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의 회계기준도 국제화시대의 글로벌 경제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국제회계기준에 준하는 회계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회계기준을 제정할 경우 베트남의 경영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업경영현장에서 회계기준 수용성과 새로운 회계처리 요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취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둘째, 내부통제제도 구축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경영자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거래발생단계부터 모든 거래를 즉시, 빠짐없이,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하고 합부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및 유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월말 또는 연말에 용이하게 장부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 분식회계를 통한 재무정보의 왜곡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 등에 대해 내부회계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요건을 중요한 유가증권 발행 등에 대한 심사항목으로 다루며 이러한 시스템을 우회하는 등 장부와 기록을 훼손시키는 경우 엄격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공시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주가조작을 위해 일부 기업들은 허위정보를 공포하거나 공시를 통해 기업의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가 기업범죄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공시기준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 이러한 공시자료의 비교가능성이나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공시기준이 없어 회계기준 적용 시 대손충당금의 과소설정, 영업권의 과대평가 등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제공하여 사실상의 분식회계임에도 이를 근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일반 법인에 비해 강화된 구체적 회계공시기준이 제정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시 재무정보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구조적 개선방안

구조적 개선방안은 크게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하며, 경영자의 독단적인 결정과 경영행태를 견제할 사외이사제도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업지배구조는 통상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한다. 특히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가 임의적으로 회계정보 왜곡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영자가 마음대로 회계정보를 조작, 왜곡할 수 없도록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외이사의 선임과 운영,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영자의 회계부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사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한다. 현재 베트남의 감사 현실은 결산기에 집중된 감사업무로 인해 외부 감사인이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갖고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부실한 감사로 이어지고 분식회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분기보고서를 제출할 때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시 감사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중요한 거래나 재무정보 공시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외부감사인이 항상 기업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인지하고 검토 및 감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영자의 횡령·배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 시행상의 개선방안

베트남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행상의 개선방안은 기업인의 윤리의식 강화와 사회적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업의 경영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즉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활동은 기업전체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즉 종업원, 주주, 소비자 등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모니터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기업별 회계투명성을 지표화 하여 발표를 한다든지, 내부 및 외부의 감시를 철저히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기업이 회계정보를 왜곡할 수 없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6장 결 론

베트남은 개방화와 개혁화의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특히 회계투명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회계투명성 확보는 기업측면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기업의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방안을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제시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국제적 표준으로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회계투명성과 회계투명성 측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한국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베트남의 회계제도와 베트남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베트남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와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베트남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준하는 회계기준 즉, IFRS의 조기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내부통제제도 구축 의무화에 대하여 제안을 하였으며, 공시기준을 강화의 필요성이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IFRS의 도입으로 회계투명성이 좋아졌다는 평가이다. 회계투명성 제고는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게 되어 기업의 투자유치여건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IFRS 도입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정착 과정에서 잡음도 나온다. 증시 퇴출 위기에 놓인 일부 상장사가 일회성 이익마저 영업이익 항목에 포함해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식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런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IFRS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세부 기준을 수정한 K-IFRS를 마련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IFRS가 정착하기까지 2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회계전문가는 보고 있다.<sup>86)</sup>

베트남의 경우에도 IFRS도입에 있어 그 장단점을 인식하고 사전에 단점을 보완을 위한

---

86) 조선일보, “IFRS 도입2년: 회계투명성 좋아졌지만.., 일부 조항 논란”. chosunBiz.com., 2013. 5. 21(기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구조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영자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할 사외이사제도의 강화와 감사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회계감리의 감독강화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구축을 통해 원활한 자본조달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계감리의 감독강화 방안으로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행상의 개선방안으로 경영자의 윤리의식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연건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분식회계의 행위유발과 근절에는 경영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분식회계를 근절하려면 기업 경영자의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즉, 기업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도덕한 기업은 사회에서 퇴출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금융감독위원회, 2013년 업무보고, 2013, pp.35-36.
- 강시진, “회계정보의 투명성 재고방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 자료, 2002. 12.
- 13.
- 강창원,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35집, 2011, pp.1-26.
- 김경호, “회계투명성과 기업회계기준”, 회계기준위원회 간담회 자료, 2002. 4.
- 김용식·강선아, “K-IFRS 조기도입 유인과 성과분석”, 회계저널, 19(2), 2010, pp.89-115.
- 김문철·안영균·정혜영, “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과 대책에 관한연구”. 회계저널, 제15권 제3호, 2006, pp.165-194.
- 남천현, “ERP시스템 도입이 회계투명성에 미친 영향”. 관리회계연구, 제6권 제1호, 한국관리회계학회, 2006, pp71-101.
- 덩티링, 「베트남 상장 주식회사의 재무공개 투명성 재고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2.
- 레티킴 오영, 「베트남과 한국회계제도의 비교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27-28.
- 박종일,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최대주주 지분율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8권 제2호. 2003.
- 손성규, “소유구조와 경영진 구성이 회계방법의 변경에 미치는 영향”. 1999.
- 송인만·양동훈·김인숙, “IFRS 조기도입의 주요 특징 및 재무제표 영향”. 회계저널 제19권 제2호, 2010, pp.345-370.
- 신동표·강남규, 「은밀한 숫자놀이 분식회계」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4, p.8.
- 신성식·양해면, “K-GAPP와 K-IFRS의 차이에 관한 연구”. 2008 춘계학술발표대회

- 논문집, 한국경영교육학회, 2008, pp.273-283.
- 신현걸,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 비교”. 대한경영학회지, 21(3), 2008, pp.1109-1136.
- 여은정 · 고윤성 · 김지홍,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IFRS 도입국(독일, 영국,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19집, 2007, pp.175-201.
- 유형자, 「분식회계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남주, “회계투명성과 회계제도의 개선”. 상장협연구, 제46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3, p110-122.
- 이상주·조용언.(1999) “회계감사인의 도덕발달수준 향상을 위한 회계교육의 윤리개입 방법”. 신라대학교 논문집, 47, 1999, pp.131-152.
- 이상천, 「분식회계의 실태와 방지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원일,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장지인, 배길수, 전영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재조명 심포지엄 발표집」 한국회계연구원·한국회계학회, 2002.
- 전영순 · 정도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한 주가반응”, 회계와 감사 연구, 49, 2009, pp.241-282.
- 정도진, “국제회계기준의 집행과 감독기관의 역할”, 국제회계연구, 22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08, pp.115-134.
- 조군제, “베트남의 기업회계와 조세제도에 관한 고찰”. 국제회계연구, 제27집, 2009, pp169-296.
- \_\_\_\_\_. · 노직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제32집, 2010, pp.289-310.
- 조병연 · 임재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분식회계 실태분석”. 국제회계연구집, 제28집, 2009, pp.199-219.

- 조선일보, IFRS 도입2년: 회계투명성 좋아졌지만.., 일부 조항 논란” . chosunBiz.com,, 2013. 5. 21(기사).
- 조세일보, 감리 사각지대 ‘비상장 기업’ , 회계감독 강화, 조세일보, 2013. 5. 7(기사).
- 최관 · 최국현, “회계부정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감리지적기업을 대상으로” . 회계학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2003, pp.214-242.
- 최수미, “회계투명성측정과 회계투명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충남대학교 회계논집, 제6권 제2호,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5, pp.227-239.
- 최성규 · 김경민,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경영자의 이익조절” . 회계학연구, 26, 2001, pp.153-175.
- 최승호, “XBRL을 이용한 재무정보공시가 회계투명성에 미친 영향” . 경영교육연구, 제50집, 한국경영교육학회, 2008, pp.281-304.
- 한국회계기준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2007. 3.
- 하혁준, 「분식회계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장, 등록기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황인태. “소유구조가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19, 1994, pp.227-245.
- 황인태 · 한봉희·강선민,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2008.

## [해외문헌]

- Ali, A., and L. Hwang. “Country-Specific Factors Related to Financial Reporting and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Data” .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8(1), 2000, pp.1-21.
- Ashbaugh, H and M. Pincus,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Predictability of Earnings” .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3), 2001, pp.417-434.
- Ball, R., and A. Robin. Time-Series Properties of Accounting Earnings: International Evidence. 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Rochester and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1999.
- Ball, R., S. Kothari, and A. Robi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Institutional Factors on Properties of Accounting Earnings”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9(1), 2000, pp.1-51.
- Barth, M, W. Landsman and M. La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Quality” .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6(3), 2008, pp.467-498.
- Berle, A. and G.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New York: Macmillan, 1932,
- Bushman, R. and A. Smith. “Transparency,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 *Economic Policy Review* 9(1), 2003, pp.65-87.
- Bushman, R., J. Piotroski, and A. Smith *What Determines Corporate Transparency?* 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Chicago, 2001.
- Cabrera, L, “Widespread Acceptance of IFRS Continues” . *CPA Journal*, 78(3), 2008, pp.36-37.
- Cairns, D., “The Use of Fair Value in IFRS” . *Accounting in Europe*, 3(1), 2006, pp.5-22.
- Claessens, S., S. Djankov, and L. Lang.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 East Asian Corporations”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8, 2000, pp.81-112.
- Curtis L. N., and Gary A. P., *Introduction to Financial Accounting*, South-Western, 2009.
- Elliott, R. and J. Willingham, “Management Fraud : Detection and Deterrence” . *Petrocelli*, Vol.23, No.2, 1980, pp.1-25.
- Fama, E. “Agency Problems and the Theory of the Firm”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 1980, pp.288-307.
- Fama, E., and M. Jensen,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 1983, pp.301-325.
- Fan, J., and T. Wong,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and the Informativeness of Accounting Earnings in East Asia”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 2001, pp.401-425.
- Hitz, J., “The Decision Usefulness of Fair Value accounting—A theoretical perspective” . *European Accounting Review*, 16(2), 2007, pp.323-362.
- Hodgdon C. Tondkar, R. H., Harless, D. W., and Adhikari, A, “Compliance with IFRS Disclosure Requirements and Individual Analysts Forecast Errors” .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17(1), 2008, pp.1-13.
- Jensen, M., and W. Meckling,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4, October), 1976, pp.305-360.
- Jermakowicz, E. K and Gornik-Tomaszewski, S., “Implementing IFRS from the perspective of EU publicly traded companies” .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15, 2006, pp.170-196.
- Jermakowicz, P., and Wulf, C.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come Reported By DAX-30 German Companies” .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 Accounting*, Vol.18, No.3, Autumn 2007, pp.151-191.
- Levine, R.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Views and Agenda”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2), 1997, pp.688-726.

- Levine, R., N. Loayza, and T. Beck.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Growth: Causality and Causes" .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46, 2000, pp.31-77.
- Lombardo, D., and M. Pagano, Legal Determinants of the Return on Equity. Università di Salerno CSEF Working Paper no. 24 and CEPR Discussion Paper no. 2276. 2000.
- Love, Inessa. "Financial Development and Financing Constraints: International Evidence from a Structural Investment Model" .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Vol. 16, Iss.3, 2000, pp. 765.
- Morck, R., A. Shleifer, and R. Vishny, "Management and Ownership and Market Valuation: An Empirical Analysis"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 1988, pp.293-315.
- Paul M. F., William J. T. and Rita H. C., Advanced Accounting, South-Western, 2009.
- Porta, R. La, "Agency Problems and Dividend Policies around the World" . Journal of Finance, 55(1), 2000, pp.1-33.
- Rajan, R., and L. Zingales. "Financial Dependence and Growth" . American Economic Review 88(3), 1998, pp.559-586.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Practic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lessons learned : country case studies on IFRS, New York : United Nations, 2008.
- Vishwanath, T. and D. Kaufmann, "Toward Transparency: New Approaches and Their Application to Financial Markets" .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Spring, 2001, pp.42-57.
- Warfield, T., J. Wild, and K. Wild. "Managerial Ownership, Accounting Choices, and Informativeness of Earnings"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0, 1995, pp.61-91.
- Wikipedi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e Free Encyclopedia, 2010.
- Wurgler, J. "Financial Markets and the Allocation of Capital"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8(1-2), 2000, pp.187-214.

Zeff, S. A, "Political Lobbying on Proposed Standards: A Challenge to the IASB" .  
Accounting Horizons, 16(1), (March), 2002, pp.43-54.